

홋카이도의 음식과 관광 프리젠테이션

<지진과 방사능 걱정 없어요!>

홋카이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2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작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인 관광객은 급격히 줄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홋카이도는 지진과 방사능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홋카이도의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전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홋카이도의 음식과 관광 프리젠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지사사와 사카모토 신이치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회장이 서울을 방문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관광세미나에서는 홋카이도마라톤을 비롯한 건기코스, 말트 레킹, 래프팅 등 스포츠관광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8월 26일 개최되는 홋카이도마라톤 시기에 맞춰 미디어와 여행업체 관계자 10여명을 초청해 시찰여행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식 프리젠테이션에서는 홋카이도산 바이오자원 등을 사용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소개하고 직접 시식해 보고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카하시 지사는 대한항공 지창훈 사장을 방문해 '하코다테-서울'간의 노선을 현행대로 유지 운항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최맹호 부사장을 방문해 서울국제마라톤과 교류 중인 홋카이도마라톤에 한국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좌) 대한항공 지창훈 총판사장 방문
(우) 동아일보 최맹호 부사장 방문



행사장의 모습



사진 제공 (저작권)
C HAS project

「리틀베리즈」 홋카이도의 작은과실 캐릭터

'하스카프, 아로니아, 비타민나무 열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부터 낯선 이것들은 홋카이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은 과실입니다. 일본 안에서도 그 대부분이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이 열매들을 PR하고자 2011년 귀여운 캐릭터 「유(하스카프), 에리(아로니아), 라무(비타민나무열매)」가 탄생했습니다. 이들 캐릭터는 각각의 열매를 원료로 만든 상품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스카프

원산지는 홋카이도 도마코이시(苫小牧市) 유후쓰 평야로 약 4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열매껍질은 짙은 파란색을 띄지만 속은 빨강고 단맛과 신맛이 나는 과실로 블루베리와 맛이 비슷합니다.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예전에는 블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열매 자체를 먹기보다는 잼, 과실주, 과자 등 식품으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로 러시아에서 개량되어 재배됐고, 홋카이도에서는 약 30년 정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로니아의 과실은 조금 뭉치지만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약 2배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와인, 과자를 비롯해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쓰입니다.

비타민나무 열매

원산지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앙부로 홋카이도에서는 15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매는 단맛과 신맛 외에도 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로테노이드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건강식품으로도 이용됩니다.



삿포로 컬렉션 2012 -한국 브랜드 첫 참가-

제 6회 삿포로컬렉션이 지난 4월 28일(토) 개최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다양한 무대와 화려한 게스트의 등장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이 패션쇼에는 올해도 9700여명의 입장객이 찾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UginiO의 무대



이번 쇼의 K-FASHION(한국패션스테이지)에서는 처음으로 UginiO, SUASTI, jk-JEAN의 3개의 브랜드가 참가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UginiO는 2009년에 런칭, 움직임이 편하고 몸을 움직였을 때의 라인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는 브랜드로 홍콩과 인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UASTI는 가족의 사랑과 지갑에 염색무늬를 프린트해서 장식하는 특이한 제법이 특징이고 jk-JEAN은 프린트데님 이 메인인 캐주얼브랜드입니다. 또한, 이 쇼에는 티아라가 특별게스트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SUASTI의 무대



2012 서울 지구촌 한마당 축제 홋카이도 아이누민족 공연단 2번째 참가!

지난 5월 5일-6일 양일간에 걸친 서울 지구촌한마당 축제에 홋카이도 선주민족인 아이누민족 공연단이 '아이누고식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누 고식무용은 아이누 전통문화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누민족 공연단의 참가는 2010년에 이어 올해가 2번째로 전통악기인 뭇구리와 돈코리의 연주, 이요만테리무세(신에게 감사의식을 치를 때 추는 춤) 등 20분간에 걸쳐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왼쪽) 뮤직카페 스테이지에서 거리 공연 중
(오른쪽)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인사



노면전차로 즐기는 삿포로 여행



그 옛날 도시의 번화가를 누비는 교통수단이었던 노면전차. 우리나라도 1898년 2월, 서울의 서대문-청량리 구간이 개통되어 운행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광복 이후, 자동차를 필두로 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 1968년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삿포로에는 아직도 도심 속을 달리는 노면전차가 남아있어 삿포로시민들의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삿포로를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고자 한다면 노면전차를 타고 중심지와 조금 떨어진 삿포로의 뒷골목을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 삿포로 노면전차의 역사 ◆

1909년 건축용 석재의 수송선으로 개설, 1912년 노선망을 시가지까지 확장하고 1918년부터 본격적인 운행이 시작됩니다. 1927년 시영화된 이후 삿포로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하철이 정비되고 나서부터 대폭적으로 구간을 축소하게 됩니다. 현재는 출발역인 니시 4초메와 종착역인 스스키노까지 8.5km 길이의 노선만이 운행되며, 총 23개 정류장으로 편도 4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채산문제로 한때 없어질 위기도 있었지만 삿포로 시의회에서 존속이 결정된 후, 현재 출발역과 종착역을 연결해 순환전차화하는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014년 완공 예정)

노면전차 여행 추천 코스!

삿포로 역 출발

지하보도로 삿포로역 다음 정거장인 오도리공원역까지 도보로 이동(약 15분 소요)

오도리공원역 10번 출구로 나와 정면 도로 가운데 보이는 '니시 4초메' 정거장(출발역)에서 승차

우선은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하차하지 않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삿포로 시가지를 감상하기

종착역인 '스스키노'에서 하차 후 반대방향에서 다시 승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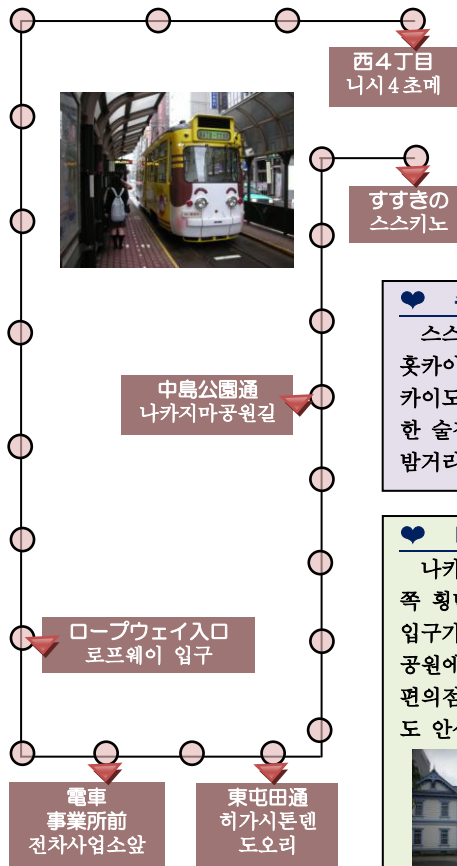
이번에는 눈에 담아두었던 장소에서 하차해서 삿포로의 뒷골목을 걸어보기

(추천 장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모이와야마의 캐릭터 '모리스'는 홋카이도의 애조다람쥐



<노면전차 노선도>



♥ 모이와야마

로프웨이입구역에서 내리면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한국어로 써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셔틀버스를 타고 로프웨이 타는 곳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15분 간격 운행)



모이와야마는 삿포로의 중앙에 위치하는 높이 531m의 산으로, 원생림이 홋카이도 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이와야마의 전망대는 2011년 12월 리뉴얼 오픈하고 신형 로프웨이와 미니 케이블카가 신설됐습니다. 로프웨이를 타고 산 중턱까지 이동 후, 미니케이블카로 같이 타면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로프웨이-1100엔
미니케이블카-600엔
*두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200엔 저렴한 할인권은 노면전차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원조 스프카레점 '아잔타'

'히사시톤텐도오리역'에서 내려 왼쪽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삿포로를 대표하는 음식 중의 하나인 스프카레의 원조가게로, 약 44년 전통의 '아잔타'. 30종류의 스파이스와 15종류의 한방약재가 재료로 쓰이며, 모든 재료는 홋카이도산입니다.



◇전차 이용방법◇



뒷문으로 승차 후 하차시에 요금을 지불합니다. 1회 승차비는 구간에 상관없이 170엔 (어린이 90엔)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노면전차 일일전용승차권 '도산코 패스(300엔)'를 어른 1명, 어린이 1명이 이용 가능하며, 하차시에 기사님에게 구입 가능합니다.

♥ '니시 4초메'역- 오도리공원

출발역인 니시 4초메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오도리공원.



오도리공원은 삿포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중의 한 곳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2월에는 눈축제, 5월에는 라일락축제, 6월에는 요사코이소란 축제, 7월 말에는 야외백구기, 9월에는 홋카이도 먹거리 축제가 열리므로 시기에 맞춰 축제를 즐겨보세요.

♥ 종착역은 '스스키노'

스스키노는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홋카이도 최대의 유흥거리입니다. 홋카이도의 명물 음식집은 물론 다양한 술집이 몰려 있으므로 삿포로의 밤거리를 즐기고 싶다면 스스키노로!



♥ 나카지마공원-도심 속의 자연과 만나는 곳

나카지마공원길 역에서 내려서 왼쪽 횡단보도를 건너면 나카지마공원 입구가 정면에 보입니다. 도심 속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잠시 쉬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기에 도 안성맞춤입니다.



←공원 안에 위치한 결혼식장으로, 메이지시대에 고급서양호텔로 세워졌습니다. 현재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